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6월 7일 목요일 (음 4월 24일) 제20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의 문화, 유럽 한복판으로

시·프랑스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파리서 'Taste Korea! 전주스페셜' 진행

비빔밥과 판소리, 한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시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유럽의 문화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 소개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주음식과 한지, 전통주 등의 집중 홍보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스페셜 메인행사에 참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테이스트 코리아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가 5월과 6월 두 달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올해는 전주시와 함께 전주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Taste Korea! 전주스페셜'로 꾸며진다.

이번 테이스트 코리아 메인행사에서는 △전주 한식 △한지문화 컨퍼런스 및 시연회 △ '전주의 날'(전주 관광과 한식의 만남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 분야 참가자들에게 행사 취지 및 역할을 설명하고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에서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테이스트 코리아 전주스페셜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음식을 집중 소개하는 등 전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프랑스에 널리 알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를 프랑스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전주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프랑스 기자의 방한취재 지원과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전주 스페셜 행사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사전홍보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문화교육 K-Food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내는 '나만의 BIBIMBAP' 콘테스트 △판소리 강좌 △한국문화 잡지 및 한식 디지털 레시피북 제작 등을 진행, 전주의 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한식과 한지 등 천년역사와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닌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라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전주의 문화영토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서부신시가지 보행자 전용도로 명품화

전주시, 정비공사 완료

서부신시가지 보행자전용도로 공사전(위), 공사 후(가운데와 아래).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보행자전용도로가 걷기 좋은 명품거리로 탈바꿈했다.

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서부권 중심상업지역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는 지난 2008년 6월 준공된 이후 건물 신축과 차량 진입 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도로가 훼손되고 일부 가로수가 고사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조성구간은 서부신시가지 내 홍산비보이광장과 비보이광장 두 곳을 중심으로 각각 십자형으로 연결된 총 길이 931m, 폭 6~10m의 보행자전용도로로, 시는 환경친화적인 투수 블록과 화강석 판석으로 도로를 다시 포장했다.

포장시 심플한 패턴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그간 보행자전용도로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의 초입부에 볼라드와 통석 벤치를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통석벤치 측면에는 LED조명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야간경관을 제공하고, 취약지역에 LED 보안등도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했다.

조석원 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공사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상가 입주자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명품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에서 설치하는 파라솔과 에어간판 등이 없어야 사람들의 공간으로 채워지는 만큼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에 주변 상인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오늘은 현충일… 태극기 정리 중

제 63회 현충일을 맞이한 6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군경묘지를 찾은 한 어린이가 진지하게 태극기를 정리하고 있다.

지방선거 화재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이 오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종 사고예방과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순찰활동 강화 등 소방관서장 중심의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근무기간은 7일 오후 6시부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9일 오후 6시까지다. 지방선거 투표일 전날인 12일 오후 6시부터 13일 개표 종료시까지다.

/기동취재반

"순국선열들의 뜻·정신 따르겠습니다"

전북도 현충일 추념행사… 김송일 권한대행 "전북 자존의 시대 열 수 있을 것"

전북도는 6일 오전 9시 55분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 앞 광장에서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해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 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추념행사를 벌였다.

추념식에는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과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을 비롯해 추모헌시 낭독에 이어 추모곡 독창,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의 추념사, 전북도립 여성 중고교의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북도지사 권한대행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와 군산·익산·정읍·남원 등 전북 도내 13개 시·군에서도 각지자체 주관으로 군경묘지 및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의견 교환

전북도 -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전북도 김송일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남원시를 방문했다.

전북도와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원시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설립예정지를 둘러 보기위한 것이다.

남원시장 권한대행인 강복대 부시장은 이날 부시장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 남원시 총무국장 및 실·과장들과 함께 설립예정지에 대한 남원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설립예정지인 KT&G와 남원의료원, 신생마을 현지를 둘러 보았다.

김송일 권한대행은 "서남대 폐교 후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키로 결정한 만큼, 전북도와 남원시가 서로 협력해서 대학 설립부터 개교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잘 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역 여론은 의전원(4년제)보다는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련학과 확장이 용이한 의과대학(6년제)체제로 처음부터 시작해 주길 바라고 있다.

남원의료원도 대학 부속병원 또는 분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립으로 승격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에 정국현 한체대 교수 임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제5대 사무총장에 정국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3년이다.

정국현 신임 사무총장은 1984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는 모교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또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매일 INDEX

3면 - 현충일에 경륜이라니?